

신나는 갯벌 바지락캐기... 한시간만에 소쿠리 한가득



전남 강진 대구면 백사어촌체험마을은 갯벌 한가운데 시멘트로 조성된 길이 있어 유모차를 가져온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쉽게 바다로 이동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낙지·굴·바지락 채취 30ha 갯벌 65가구 주민 샅터 2008년 어촌마을 선정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송어·돔 낚시 어선타기 체험 물때 달라 사전 예약 필수

최근 방문한 전남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은 순박한 사골 아낙의 느낌을 물씬 풍겼다. 군 소재지에서 23번 국도를 타고 마량항을 향해 해안선을 따라 가다보면 강진만 초입에서 만날 수 있다.
도로에서 보이는 바닷가를 향해 10분 정도 걷자 30ha 규모 아담한 갯벌이 눈에 들어온다. 백사마을이 가진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마을 주민들의 삶터다.
갯벌에서는 아낙 10여명이 퇴각물에 아랑곳 않고 한창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호기심이 일어 물어보니 멀리서 무언가를 흔들어 보이며 '낙지'란다.
백사어촌체험마을 건물 앞에서 만난 김성일(50) 백사어촌계 사무장은 "봄·가을철

은 빨낙지, 겨울은 석화(굴)가 주로 잡히고 바지락은 사계절 내내 캔다"고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앞바다에 흰모래가 많아 '백사'(白沙)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한때는 모래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쓸려나가 흔적만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유래는 다른 곳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 1976년 강진군이 발행한 마을 유래지에 따르면 조선 성종 때 (1674년) '달성 서씨'가 처음 터를 잡았고 영조 때 '창원 황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전해진다. 마을 주민 중 황씨가 많은 이유다. 마을에는 65가구 100명 남짓 거주하고 있다. 혼한 식당이나 슈퍼도 없다.
백사마을은 지난 2008년 어촌체험마을



체험장 한켠에 마련된 돌 웅덩이는 체험을 마치고 몸에 묻은 갯벌을 씻어낼 수 있다.

로 선정,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 가우도, 마량항 등 유명 관광지 사이에 자리한 까닭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고 있다.
주요 체험은 바지락잡기와 꼬막잡기다. 5000원(정소년 3000원)만 내면 물때에 따라 1시간~1시간30분가량 즐길 수 있다.

같이입을 옷만 준비한다면 갯벌 초보자라도 부담이 없다. 수십 년 간 내공이 쌓인 마을 주민들이 동행해 포인트를 짚어주니 소쿠리 하나쯤은 쉽사리 채운다.
전통방식으로 갯벌 한구석에 돌을 놓아 만든 마름모꼴 웅덩이에서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는 일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또 어선타기 체험(3~10월, 어른 3만원·어린이 2만원)도 할 수 있다. '백사어촌계'를 타고 강진만 주변을 돌며 깨끗한 물에만 산다는 은어를 비롯해 송어·물메기·가자미·돔·납치 등을 낚는다.
다만 매일 물때가 다르니 사전 예약은 필수다.

백사마을은 멀리서 온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백사어촌체험마을 건물 2층에 큰방(최대 25명 수용) 1개, 작은방(최대 8명 수용) 3개가 대기하고 있다. 숙박료는 몇 명이 오든 큰방 8만원, 작은방 7만원이다. 요새 찾아보기 어려운 '착한' 가격이다. 취사실은 건물 밖에 있다. 주변에 식료품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음식물은 든든하게 준비해야한다. 아니면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대구면 소재지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백사마을의 또 다른 숨겨진 매력은 갯벌 사이로 난 콘크리트길이다. 지난 2009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 앞 갯벌 두 군데에 폭 2.5m 길이 각 500m·300m 길을 만들었다. 썰물 때 바닷물이 최대 500m까지 빠지는 것을 감안하면, 힘들이지 않고 갯벌에 발을 담글 수 있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어 인기가 좋다. 평생 갯벌이나 바닷물을 가까이서 보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밀물 때 방문해도 해상 데크를 통해 바다로 나가 낙지 등을 즐길 수 있다.

백사마을의 특산물

강진만의 크고 작은 9개에 하천이 만나는 바다이다. 적당한 염분과 영양분이 어우러져 각종 해양생물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 마을이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이다. 청정해역이 내륙으로 들어온 고갈 모양으로 영양염류가 많아 싱싱한 패류가 생산된다.
백사마을 특산물로는 꼬막, 바지락, 낙지, 석화(굴)가 있다.

봄·가을 호미로 잡는 빨낙지 유명 자연산 굴 예약해야 맛볼 수 있어

청정해역 갯벌 30ha에서 마을 주민들은 꼬막, 바지락 등을 캐 생계를 잇고 있다. 특히 석화는 100% 자연산으로, 연중 바다에 나가 뜬에 붙어있는 것을 직접 채취해 판매하고 있다. 자연산이라 향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채취를 하지마자 생굴 상태로

팔려나간다. 택배로도 가능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예약을 해야만 백사마을 자연산 석화를 맛볼 수 있다.
낙지는 봄, 가을에 호미로 잡고 있다. 백사마을 갯벌은 다른 지역 갯벌에 비해 모래가 덜 섞여 호미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깊은 바다에서 통발로 잡은 낙지는 먹었을 때 짠맛이 나는데 백사마을 앞 갯벌에서 호미로 잡은 낙지는 다른 지역 낙지보다 단맛이 난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자랑이다. 백사마을 특산물 구매는 전화 문의 후 구매가 가능하며 택배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특산물 구매 문의 : 김성일 강진 백사마을 사무장(010-9696-2761)
/김중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과장 kikair1@naver.com

찾아오시는 길

강진 백사어촌체험마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해안길 253)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서영양IC→남해고속도로→목리 교차로→마량 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직진→약 12.8km 지나 백사어촌체험마을

◇고속버스

서울강남고속터미널→강진스타미널→마량행 농어촌버스(약 50분 소요)→대구초등학교 정류장→도보 8분→백사어촌체험마을

◇열차

목포역→목포버스터미널→강진행



버스→마량행 농어촌버스→대구면 백사어촌체험마을

“가우도·청자박물관 연계 다양한 행사 강진만 깨끗한 갯벌서 마음껏 즐기세요”

황성환 백사마을 어촌계장

“우리 마을은 질 좋은 갯벌이 자랑입니다. 처음 갯벌에 온 사람들도 인심 좋은 마을 주민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누구나 즐겁게 바지락을 캐갈 수 있어요. 항상 환영할 준비가 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황성환(58·사진) 백사어촌계장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나고 자란 마을에 자부심이 있다. 지난 10년간 백사마을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그는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 앞장서고 있다.

현재 그는 어촌계장과 함께 백사마을 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도 맡고 있다. 지역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가입했다.

또 지난 2008년 강진에서는 3번째로 생긴 어촌체험장 조성에 앞장섰다. 지난 2009년부터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황 계장은 “백사마을은 강진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가우도, 청자박물관, 마량항 등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해남 두륜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 등 강진만 일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원한 경치가 자랑거리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운영을 도와주니 다른 곳보다 끈끈한 정이 있다”고 말했다.

계장으로서 한 일 중 가장 뿌듯한 일은 ‘갯벌 진입로 조성’을 꼽았다. 연로한 주민들이 갯벌 작업을 나갈 때 한걸음이 덜 들고 유모차, 휠체어 등도 들어갈 수 있다.

황 계장은 “점점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힘닿는 데까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마을 주민이 갯벌작업을 위해 걸어 가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어촌체험센터. 이 건물 2층은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